

메르스 확산세 지속...장기화 조짐

순창 70대 등 사망자 15명...지역감염 우려 확산
광주·전남 관리대상 710명 특별한 증상은 없어

메르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완전 퇴치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확진 환자의 사망이 속출하면서 사망자는 14일 오후 8시까지 모두 15명으로 늘었고 추가로 의료진이 감염됐다.

〈관련기사 2·3·6면〉

3차 감염자에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옮은 4차 감염자도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 13일 추가된 환자 중 4차 감염자는 133번 환자(70)로, 5일과 6일 76번 환자(여·75·6월 10일 사망)를 운송하던 민간구급대 소속 구급차 운전자다. 지난달 20일 1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4일만에 3명의 감염자를 거친 4차 감염자가 나온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환자는 7명이 늘어 145명으로 증가했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격리자도 전날보다 842명이 늘어난 485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전체 145명의 환자 가운데 10명이 완치 퇴원했으며, 이날 부산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81번 환자(61)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15명이 됐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순창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51번 환자(여·72)가 숨졌다. 51번 환자가 생활해온 순창의 한 마을은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30대 의사가 또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13일 발표된 138번 환자(37)는 삼성서울병원의 의사가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 감염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35번 환자(38)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138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35)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4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30일 이후에도 이의사는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진료를 계속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방역 당국은 138번 환자에게 노출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이 의사가 10일 오후에야 발열 증

광주·전남 메르스 현황

(14일 20시 현재)

확진 환자 1명 (보성 60대)

광주 ... 관리 대상자 68명

(국가지정병원 입원 1명

자택격리 38·본인감시 29명)

전남 ... 관리 대상자 641명

(자택격리 304·본인감시 337명)

전국 감염 145명·사망자 15명

격리 4856명·퇴원 10명

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추가 전파 우려도 커지면서 이날부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신규 환자의 외래와 입원을 제한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을 중단하는 등 부분 폐쇄에 준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24일 까지 병원을 부분 폐쇄, 신규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현재 광주·전남지역 메르스 관리대상자는 전남 보성의 확진환자 1명 등 710명이다.

광주의 메르스 관리대상자는 68명이며, 이 중 1명은 국가지정병원에서 38명은 자택에 격리돼 있다. 나머지 29명은 능동 모니터링(본인감시) 대상자다. 전남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642명이 메르스 관리대상자로 304명은 자택에 격리돼 있으며, 337명은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다.

／박진표기자 lucky@연남뉴스



메르스 유전자 채취

14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지하의 생물안전밀폐실에서 한 연구원이 광산구 보건소에서 보내 온 메르스 의심 검체 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 멸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의 붉은색 물체가 메르스 의심 검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일 위안부 협상 마지막 단계”

당국자 “9부 능선 넘었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국장급 채널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은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개최된 7차 협의 직후부터 지난 11일 8차 협의 직전까지 “서로 입장만 얘기하는 단계는 넘었다. 접점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전이 있

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측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8차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서로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면서 접점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최종 단계,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늘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남게 된다”면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 한빛원전 1·2호기 설계수명

발전소명	용량(MW)	운영허가일	설계수명만료일	설계수명(년)	사고·고장(건)
한빛1호기	950	1985.12.23	2025.12.22	40	41
한빛2호기	950	1986.9.12	2026.9.11	40	50

(자료:한수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국내 첫 원전 폐로

고장·사고 많은 한빛 1·2호기 폐로 대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설계수명 만료 10여년 남아

폐로(廢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부산)가 오는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폐로·廢爐)에 들어가기로 결정되면서 설계 수명 만료를 10년여 앞둔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설계 수명 만료가 폐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판단과 여론,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주는 만큼, 잦은 고장·사고를 일으키는 한빛원전이 제때 폐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

14일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986년 8월 25일 첫 상업운영에 들어간 한빛 1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2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이어 1987년 6월 10일 첫 가동에 들어간 한빛 2호기도 2026년 9월 11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한빛 1·2호기가 정해진 설계 수명이 만료될 경우 추가 가동 연장 없이 폐로에 들어가기 위해선 광주시, 전남도 등 자치단체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앞서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반발에도 설계 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경주)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는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원전 해체까지는 운영변경 허가 및 원전 해체 승인 등의 절차가 남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 1호기의 해체에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상업용 원전을 해체본 경험이 없고 기술도 부족해 폐로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로 해체와 중저준위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욱기자 khh@kwangju.co.kr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D-18 광주 U대회 손연재 출전
UNIVERSIADE GWANGJU 2015



누구와도 닮지말라.
The CLA-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LA 200 CDI 2,143cc 1,560kg, 7G-DCT 복합연비 18.0km/ℓ (도시연비: 15.5km/ℓ, 고속도로연비: 22.5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 CLA 250 4MATIC 1,991cc 1,530kg, 7G-DCT 복합연비 11.3km/ℓ (도시연비: 9.9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56g/km
• CLA 45 AMG 4MATIC 1,991cc 1,630kg, AMG SPEEDSHIFT DCT 7-speed 복합연비 10.6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